



아카시아꿀 생산시 알아야 할 상식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상균

아무리 벌을 잘 길러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카시아 때 잘못 대처하게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좀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 분봉열 잡재우기

아카시아 철에는 꿀이 워낙 잘 들어오고 기후가 분봉하기 적합한 기후이다 보니 왕대를 계속 제거하더라도 분봉열이 잘 일어나고 한번 분봉 하려고 여왕벌이 몸을 줄였을 때는 계속 분봉 나가려고 하지 수 그러들지를 않게 된다.

평상시 같으면 왕대가 봉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분봉 나가지만 아카시아 철에는 급할 때는 왕대가 봉하기 전에도 분봉 나가게 됨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봉군이 있을 때는 우선 여왕벌을 빼내서 교미상이나 빈통에 1매 정도 착봉 소비에 왕을 붙여 빼내 주어 원군은 임시 무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빼낸 여왕벌은 다시 몸을 불려서 3~4일 정도 되면 알을 까기 시작하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켜졌을 때, 다른 무왕군에 서로 교차하여 유입을 해주면 분봉열을 임시 잡재울 수가 있게 된다.

분봉열이 난 왕을 빼내고 왕대를 붙여주어 처녀왕이나 오도록 해도 되겠고 신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신왕을 유입해도 되겠다.

날개를 잘랐을 경우 분봉 나왔을 때 여왕벌이 나르지 못하니까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는 왜 분봉 나가지 않느냐고 일벌들일 여왕벌을 공격하게 될 때가 많은데 날개를 자른 여왕벌이 분봉 나왔을 때는 빨리 원군 소상을 옆으로 치워놓고 빈통에다 공소비나 소초광을 넣고 원위치에 놓으면 분봉을 받은 것과 같게 되므로 분봉나갔던 벌이 다들어난 다음 분봉 받은 통을 그대로 놓아도 되고 원래 있던 통을 제자리에 놓고 분봉 나왔던 벌을 다른 자리로 옮겨 놓아도 되겠다.

■ 정확한 이동 날짜 잡기

이동시기를 잡는다는 것이 쉽고도 어렵게 되는데, 잘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급방 알 수가 있어 하루 정도를 잘못 잡게 된다. 그러나 하루면 많은 량의 꿀이 차이가 나게되고 다음번 이사하는데 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더욱 손해가 많아지게 된다.

아카시아 꽃은 보통의 기후 일 때는 한 지역에서 1주일만 꿀이 잘 들어오게 되므로 그 이상 안보는 것이

좋다.

주밀원이 언제 만개가 되는 가를 꼭 기억해놓고 그 날까지 합쳐서 7일이 되는 저녁에 이사를 가면 거의 맞게 된다. 그러나 개화 후 기온이 21~22℃정도 밖에 안올라 갈때는 하루, 이틀 꽃이 더 오래가게 되며 높은 산에 아카시아가 많아 늦게 피는 꽃이 많을 경우에도 밀원이 충분할 경우 그 산에 있는 꽃이 만개 되는 날을 따져서 다시 7일되는 날 이사 날짜를 잡으면 되겠다.

기온이 23℃미만 일 경우 꿀 분비를 잘하지 않아 꿀이 잘 만나게 되는데 양봉인들은 불안하여 꽃이 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양봉인도 있게 되는데 이사갈 곳이 25℃이상 기온이 높을 때는 이사가 가는 것이 좋지만 온도가 낮다든지 같은 경우에는 꽃이 남아 있을 경우 이사가 봐야 비용만 들고 고생만 하게 된다.

올해는 4월중순경 중부지방 기온이 여러날 췌(FAN) 현상에 의하여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남부와 중부지방의 화기 차이가 줄어들 것 같은데 남부지역보다는 중부지방이 토질이 좋아 꿀이 잘 나지만 꿀 분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기온이 제일 비중이 높으므로 중부지방의 꽃이 개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높을 때만 남부지방 꽃을 남겨놓고 이동하는 것이 정석이 되겠다.

꽃이 증반정도 되었을 때 비가 온 후에도 남쪽에 꽃이 남을 정도이면 비가 온 후에는 대개 기온이 북서풍이 불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중부지역과 2~3℃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남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 온 후에 꿀이 잘 들어오게 되므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 되겠다.

마지막 밀원으로 이동시에는 어느 지역이고 꽃에 비하여 벌이 많은 편이고 꽃이 늦게 피는 지역일수록 기온이 낮아 꿀 분비 또한 떨어지게 되므로 벌이 많아 수정이 빨리 되고 나면 꿀 분비를 하지 않게 되어 꽃이 남아 있어도 꿀이 잘 안들어 오게 된다.

꽃에 비하여 벌이 많은 지역일수록 증반이후 꽃 색깔이 약간 누런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사가면 대다수 꿀이 조금 들어오다 끝나게 되어 채밀을 할 수가 없어 고생만 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밀원으로 이사가고져 할 때는 대개 벌이 많은 편이므로 가급적 초화에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보다 기후가 약간 높아져 고랭지 지역에서 꿀이 안나던 곳도 최근에 와서는 꿀이 조금 나는 경향이 있어 채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일기예보를 들여보아 그 지역의 기온이 24℃이상 올라가면 이동해도 꿀을 뜰 수가 있게



된다.

화기가 정상적으로 피지 않는 해에는 예년 다니던 자리로 갈려고 하면 화기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평소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화기가 약간 늦었던 지역에 벌이 적게 가는 곳을 봐두었다가 이동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고 채밀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강군이나 오후 채밀을 했을 경우 이동시 벌이 잘 안 들어가 애를 먹게 되는데 물에 락스를 10분의 1정도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소문 앞에 붙은 벌한테 살짝 뿌려주면 냄새를 싫어하여 쉽게 들어가게 된다.

■이동시 열받아 죽는 것 방지

강군을 가지고 이동하다보면 자체열로 인하여 전부 삶아 죽게 되고 봉충이나 소비까지도 버리게 된다. 이동하기전에 강군과 약군을 알아 놓았다가 저녁에 약군에 벌을 보태주어 벌이 몰린 것을 그냥 가지고 이동하지 말아야 하겠다. 벌이 많이 붙어 있어 여왕벌 찾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가급적 공소비 같은 곳이 여왕벌이 잘 붙지를 않으므로 이러한 소비를 그대로 넣어 주든지 털어주면 되겠다. 이때 출입구 바닥으로 벌이 들어가면 애를 먹게 되므로 사전에 흙같은 것으로 벌이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한 다음 털어 주어야 하겠다.

단상관리시 이동하여 개포를 덮어 줄 때도 뚜껑 안에 붙은 벌의 양 가지고 강군인지 약군인지 알 수가 있으므로 많은 것은 약군에 털어 주면 쉽게 벌 고르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왕벌은 절대로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이동하다 차량이 고장났든지 길이 막혔든지 전방이나 배에 신고 섬에 들어가고자 할 때 오래 기다리다 보면 열이 나서 많은 봉군이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한 두통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통도 같이 열이 나게 되므로 벌통 사이에 손을 넣어보아 후끈후끈하고 벌 냄새가 유난히 많이 나면 열이 나는 증상이므로 찬물을 몇 말 갖다 위에서 벌통사이로 부어주면 쉽게 가라앉게 된다. 얼마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또 다시 물을 부으면 가라 앉게 되어 열 받아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필자가 전방출입을 오래 하다가 터득한 방법인데 35℃되는 날 낮 1시까지도 이방법을 응용하여 한 통도 죽이지 않은 경험이 있으니 양봉인들은 잘 기억해 놓으면 언젠가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간혹 이동시 피곤하여 휴게소나 갯길에서 잘 때가 있는데 운전기사와 같이 잠들면 오래 잘 수가 있어 열받아 죽을 수 있으므로 알람시계를 가지고 다니던가 요즘 휴대폰 가지고 다운 받으면 알람을 정확히 해주므로 안심하고 잘 수가 있으며 다른 동료와 같은 날 이동할 때는 얼마 후에 잠쯤 깨게 전화 해달라

고 하는 것이 좋다.

■벌 몰림 방지

벌은 강군으로 몰리는 습성이 있지만 밀월분포나 바람의 방향 비상하기 좋고 나뭇에 따라 벌이 몰리게 된다. 특히 아카시아 철에는 이동한 첫날 많이 몰리게 되는데 대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 몰리는데 벌통의 옆에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부는 방향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옆으로 길게 놓을수록 몰리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짧게 놓든가 바람을 뒤애나 앞쪽에서 부는 쪽으로 놓는 것이 좋다.

벌통을 일렬로 놓기보다는 지저분하게 줄을 형성시키도록 놓는 것이 몰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벌통을 적은 장소에 줄을 총총 놓아도 적게 몰리지만 너무 한 장소에 많이 놓으면 벌들이 공릉에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다보니 역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꿀이 잘나는 곳과 안나는 곳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보니 바닷가 가까운 곳은 바다기온에 접하게 되고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오다보니 내륙보다 기온이 약간 낮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시기에 북서풍이 잘 불다보니 서해안 지역의 섬이나 바닷가가 이러한 지역에 해당되겠다. 이러한 지역은 내륙보다 꿀 분비량이 기온이 낮은 관계로 떨어지게 되고 강원도 같은 고랭지 지역도 꿀 분비가 잘 안되게 된다.

가급적이면 해안가에서 15키로미터 내륙 안쪽에 있는 밀원이 기온이 0.5~1℃정도라도 높아 꿀 분비가 많게 된다. 북서쪽이 약간 높은 산이 있어서 북서풍을 막아주는 지역에서는 이보다 가까워도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꿀 분비가 양호하며 서쪽이 산이 전혀 없다시피 할 때는 이보다 멀어도 기온이 떨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어며 웬 현상이 올 때는 서해안 바닷가가 오히려 더 꿀이 잘나게 되고 동해안은 서풍이 약간 불어 태백산맥을 넘어며 웬 현상이 올 때 동해안 기온이 높아 꿀이 쏟아지게 된다. 그러나 통상 동해안은 몇 년에 한번씩 동풍이 불면 기온이 낮고 안개가 짙게 끼면서 꿀이 잘 안나게 되어 기록이 심하므로 중부 내륙 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통계를 내었을 때 약간 확률이 떨어지게 되므로 동해안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닿는 곳으로 밀원이 있으면서 꿀이 잘 안나는 대표적 해안가 밀원은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신두리와 학암포 밀원이 되는데 이러한 곳은 필자도 과거 2년 동안 가본 예가 있지만 비용만 들이게 되므로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다.

6월초에 개화하고 꽃도 잘 피므로 답사해보면 양봉

인은 눈이 휘둥그러지게 되어 빨리 이동해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혹시나 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과거 양봉인들이 와서 꿀을 얼마나 떠 갔느냐고 물어보면 여러 드림 채밀했다고 하게 되는데 사양시켜 떠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얘기는 들어봐야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6월초나 중순에 피는 태백 정선 평창 고랭지 지역은 꿀 분비가 잘 안되어 채밀이 안될 때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상대 예보를 들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가끔씩 북서쪽이 평지나 논 또는 강이 아닌 곳이 좋은데 이는 북서풍이 불어와서 바로 닿는 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이다. 구릉지역이 바람도 막아주고 기온이 높아 꿀 분비가 양호하며 한쪽에 300m내외의 산이 있어 화기가 차이가 많은 곳이 있을 때는 화기가 길어 한곳에서 네 번까지도 채밀이 가능하여 좋은 곳이 되겠다.

고랭지나 바닷바람이 심하게 닿는 곳의 밀원은 꿀샘이 기형인 것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꽃은 보기는 좋지만 꿀 나오는 곳이 없으므로 무용지물인 셈이므로 밀원을 좀더 많이 가지고 보는 것이 좋다. 모래가 많은 안동이나 포천지역도 토질이 나빠 이러한 지역도 꿀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의 꽃은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꿀이 잘나는 지역보다 좀더 밀원을 넓게 보는 것이 정석이 되겠다. 답사시에는 언제든지 꽃을 까보아 꿀샘에 꿀이 가득한가를 보면 꿀이 잘 날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꿀샘에 꿀이 없으면 꿀이 안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꿀 향기가 차창 밖에서 짙게 날 때는 꿀이 잘 난다는 징표가 되겠다. 꽃과 벌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밀원이 부족한지 남는지를 알 수가 있으므로 항시 기억해 두어 참고로 삼는 것이 좋는데 벌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벌을 일부러 다 찾아 다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2단 이상의 계상이 계상보다 유리한 점

외국에서는 밀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4-5단계상까지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밀원 여건상으로는 계상 또는 2단계상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한곳에 오래 머물 때는 몇 단을 올리더라도 어려움이 없지만 1주일단위로 아카시아 철에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계상보다 2단계상이 유리한 점은 계상의 숫자가 많을 수록 1단 정도마다 대개 수분이 1도정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상이나 계상을 채밀하였을 때는 밀방에 묻은 꿀을 혀로 할아서 정리 한 후에 꿀을 몰러 나가다 보니 채밀한날 역사 하러 나가는 것이 정리 시간 때문에 많이 허비하게 된다. 그러나 2단 3단계상으로 채밀하였을 때는 정리하는 벌의 숫자가 적게 달라붙고서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에 별반 지장을 안주기 때문에 채밀을 하더라도 지장이 적게

된다.

2단 이상은 꿀이 잘 들어오면 채밀도 매일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날은 계상 것도 같이 채밀하지 않으면 채밀할 량의 꿀을 담아서 이동하는 것과 같으므로 계상도 같이 채밀해야 하겠으며 평상시에는 계상과 2단계상을 바꾸어 놓고 제일 위에 있는 2단계상만 채밀하면 되겠다.

■ 새로운 밀원선택시 최소한의 에티켓

양봉인들이 밀원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보고 남을 정도 일때는 적당한 거리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미덕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고정양봉을 하면서 봉군 수는 많지 않으면서 밀원은 남아도는데도 배봉만 한다면 이동 양봉을 어떻게 하겠는가. 고정양봉인 중에는 벌을 시작하지도 얼마 안되어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밀원이 남는지 부족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봉하는 것부터 배워서 배봉하는 양봉인이 간혹 있는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기술 습득 기회가 적어 양봉인으로써 성공하기가 어렵고 적당히 전업 양봉인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한다. 매년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게 채밀을 했다면 밀원이 충분하다고 보면 되겠다. 가까운 거리에 많은 봉군이 올 경우 기분이 좋을 리야 없었지만 벌통 수만 보지말고 꽃에 벌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살펴보아 밀원이 많고 적은 것을 가려야 하겠다. 벌들이 한쪽에 많을 경우 서로 벌이 적은 쪽으로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게 되지 강군이 많이 있다고 내벌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벌이 분봉나온 것처럼 많이 보이면 이는 밀원이 적은 상태이고 벌이 한가하게 나르면 충분한 상태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사람이 두세사발의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꽃이 지고나면 다 없어질 상황인데 밥이 쉬어서 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양봉인은 남의 밀원이 탐이 나면 남이 수년간 다니던 그 자리에 가서 봄부터 벌을 기른다가 미리 가져다 놓고 빼앗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거리에 안아무인격으로 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전체 양봉인들을 피곤스럽게 하는 양봉인으로서 양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돈이 탐이 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남의 밀원이 탐이 나서 빼앗으려 대드는 것은 남의 돈을 빼앗으려는 도둑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밀원이 남는 것 같고 정히 오갈 데가 없다면 그 동안 보던 양봉인 한테 양보를 받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서 좀더 먼 곳에서 역사하도록 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된다.